

“‘더 큰 남원’ 향한 도약 최선” 폭염 대응 종합대책 강력 추진

최경식 시장, 민선 8기 취임 3주년 맞아 시정 성과 공유·소통 행보 이어가

남원시는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7월 1일과 2일, 시청과 복지 현장에서 기념행사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더 큰 남원’을 향한 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첫째 남인 7월 1일 아침, 등꽃길 주요 지점을 찾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캠페인을 직접 동참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시청 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남원시 주요 변화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복지제도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성과가 소개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일 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배식봉사로 어르신들과 직접 식사를 나누며 소통했다.

특히 시민 주도의 참여행정과 지역 경제 회복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조명되며, ‘변화의 중심’으로서 남원의 현재 위상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남원발전연합회가 민선 8기 동안의 지역 발전을 이끈 시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최경식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어진 기념사에서 “남원의 변화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공약 이행을 80% 달성, 국립기관 유치, 정주환경 개선 등 주요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시장은 2일에는 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배식봉사로 어르신들과 직접 식사를 나누며 소통했고, 이어진 간담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외곽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노선 확대 △진입도로 좌회전 안내 부속으로 인한 불편 개선 요청 △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설치 필요성 △특수 어르신 정서지원을 위한 소모임과 생신·위문 프로그램 운영 △상당, 교육 보조 등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기되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복지, 산업, 정주환경,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왔으며, 이번 3주년 기념행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시민과 함께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로, 남원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남원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순창군은 (재)육전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됐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495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이들에게 총 8억 9,5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으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

지원 금액은 학년 및 재학 시기, 중·고등학교 졸업 지역 등에 따라 구분됐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1인당 200만 원,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는 150만 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순창=이영원 기자



여자단식 우승 하야시다 리코 선수



남자복식 우승 윤형욱·김병국 선수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금빛 질주

순창 오픈서 하야시다 리코 2관왕·윤형욱·김병국 남자복식 우승

순창군청 남녀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5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하야시다 리코 선수로, 여자 단식과 혼합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오르며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 하야시다는 안정된 경기 운영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정상에 섰고, 혼합복식에서는 양일현(대전동구청) 선수와 호흡을 맞춰 환상의 팀워크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윤형욱·김병국 조는 남자 개인복식에서 완벽한 호흡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설운수 선수는 육전군청의 이수진 선수와 함께 출전한 혼합복식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며 입상에 성공, 순창군청의 입상 행진에 힘을 보탰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합동전담팀 구성... 비상근무 체계 유지·대응체계 구축

임실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열돔 현상으로 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운영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폭염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여름철 재난 대응 관련 간부회의를 갖고 “여름철 장마와 폭염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수차례 강조해 바 있다.

이미 군은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대책 기간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계속 가동된다.

특히,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체계와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 중이다.

군은 여름철 군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347개소(경로당·마을회관 332, 읍·면사무소 13, 기타 2개소)에 대해 냉방비 등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관리자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도 추진 중이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는 그늘막 1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늘막 1개소를 8월 중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살수차 5대를 임차 운영하여



읍·면 주요 도로 22km 구간에 대해 폭염특보 시 집중 살수를 실시하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확산을 저감시킬 예정이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관내 폭염 취약계층 6,534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및 복지기관에도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문을 비치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이장,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고령 농업인 대상 예방 활동 및 폭염 시 휴식 유도, 마을 방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폭염 예방 요령 홍보, 장시간 단독 농작업 자제 유도 등의 예방조치를 추진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분야별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특보 시 살수차 운영과 예방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철저한 폭염 대응을 통해 군민 모두가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상반기 재정집행 도내 1위 달성

남원시가 여러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에서 도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신속 집행 분야에서 대상액 5,021억원 중 3,079억원(집행률 61.3%)을 집행해 정부 목표(54.8%) 대비 328억원(6.5%p) 초과 기록하였으며,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액 1,066억원 대비 178억원(16.6%p) 초과 달성한 1,244억원(집행률 116.6%)을 기록하며 지역 내 경제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는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에서 신속집행 분야와 소비·투자 분야 모두에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율을 달성한 도내 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한 지자체며, 전 분야 목표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시의 이와 같은 성과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 및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관리 등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은 “이번 결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적극 행정

실행계획 실천 박차

임실군이 2025년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로 ‘적극 행정·협업 마이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극 행정 실행계획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중심의 창의적·적극적인 일 처리로 군민 행복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극 행정·협업 마이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추진한 적극 행정 실적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 행정 업무 기획 △효율적인 집행 관리 △적극 행정 지원제도 활용 △주민 등 정책 대상자 불편 해소 등의 세부 기준에 따라 마이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마이리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임실사랑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하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등도 병행하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농기센터, 토양검정

속련도 평가전 항목 ‘우수’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2025년 토양검정 속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양검정 속련도 평가’는 전국 15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2종의 미지 토양 시료에 대해 토양 pH, 전기전도도(EC), 치환성 양이온 등 총 9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은 9개 검정 항목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실제로, 센터는 매년 4,000점 이상의 토양 샘플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장 기술지도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시비량과 토양 개량 방법을 제시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